

# 이적 호랑이 변우혁, 홈런 폭발... “올 시즌 느낌 좋다”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변우혁이 시원한 한방으로 '이적 신고식'을 했다.

KIA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WBC 대표팀을 상대로 연습경기를 치렀다. 이번 스프링캠프 들어 첫 실전 경기에서 김기훈을 선두로 신인 윤영철, 송후섭, 김승현, 김유신, 윤종현, 유승철이 마운드에 올라 컨디션 점검했다.

타석에서는 김호령과 이창진이 나란히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변우혁은 WBC 대표로 나선 이의리를 상대로 좌측 담장 넘기는 시원한 솔로포를 장식했다.

KIA는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장타 강화'를 위해 투수 한승혁과 장지수를 내주고 변우혁을 영입했다. 변우혁은 새 팀에서의 첫 실전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변우혁은 또 다른 이적생 주효상과 룸메이트로 지내면서 새 팀에서의 첫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그는 “효상이 형이랑 서로 의지하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얘기하면서 적응은 다했다. 지금은 팀 포메이션이라든지 기술적 부분에서 융화하는 단계”

WBC 대표팀과 연습경기

이의리 상대 화끈한 솔로포

“팬들에 장타 보여주겠다”

라고 캠프 생활을 이야기했다.

변우혁은 한화가 2019년 신인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 선수로 선택한 유망주다.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트레이드이기도 했지만 변우혁은 '타닝포인트'로 삼았다.

변우혁은 “운동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드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멍하고 실감이 안 났다. 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다”면서도 “그래도 KIA라고 하니 좋았다. 우선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또 작년에 일년 내내 아파보니까 이렇게라도 타닝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내내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했던 만큼 우려의 시선은 있었다. 이에 대해 변우혁은 '이상 무'를 이야기한다.

변우혁은 “지금 훈련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트레이닝 파트에서 코치님들이 너무 감사할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다”며 “처음에는 훈련량이 많아 피로가 조금 쌓였는데 관리를 잘 해주셔서 지금은 상태가 정말 좋다”고 이야기했다.

변우혁은 건강을 우선 삼아 차분하게 자신에게 기대하는 장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다.



19일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 키노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3 대한민국 대표팀과 프로야구 KBO리그 KIA 타이거즈의 평가전. 7회말 KIA 변우혁이 대표팀 투수 이의리를 상대로 좌월 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재활 끝나자마자 바로 온 것이라서 캠프에서 우선 목표는 안 다치는 것이다. 작년에는 군대 갔다 와서 뭔가 보여주려고 오버 페이스를 했다. 그러다가 다쳤기 때문에 몸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타를 많이 기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내가 좋아지고 있다

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범호 코치님이랑 훈련하면서 점점 좋아진다는 게 느껴진다. 몸에서 느끼고 있다. 올해는 정말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이범호 코치는 새 얼굴 변우혁과의 만남을 기대했었다. 변우혁도 이 코치의 만남을 기대했다.

변우혁은 “KIA가 작년에 공격 지표에서 대부분 1위를 했다. 작년에 KIA를 상대하면서 뭔가 거를 타선이 없다고 느끼면서 수비하고 경기에 임했다. 그래서 당연히 기대를 많이 했다”며 “타격을 하면서 손이랑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빼면서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멀리, 정확하게 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 폼을 바꾸기 보다는 디테일한 면을 많이 이야기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수비는 3루를 중심으로 1루 연습을 병행하고 있다. 변우혁은 “3루와 1루를 오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두 개 다 병행하면서 연습 했고, 경기도 거의 반반 비율로 나갔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도 그렇고 크게 걱정 안하고 있다. 박기남 코치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성범과 최형우 등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도 변우혁에게는 존재 자체로 배움이 된다.

그는 “나성범, 최형우 선배는 예전부터 유명한 거포다. 처음 광주와서 봤을 때는 많이 신기했다. 지금은 타격할 때 같은 조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일본 가서 또 시범경기 때 많이 보고 배울 생각이 다”고 언급했다.

우타거포에 대한 갈증으로 KIA는 변우혁을 선택했고, 팬들은 기대감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다.

변우혁은 “KIA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너무 잘 안다. 작년에도 광주 원정을 오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다”며 “더 열심히 해서 팬들의 기대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wool@kwangju.co.kr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공격수인 손흥민이 19일(현지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열린 2022-2023 EPL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그 5호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조커’ 손흥민, 출전 4분 만에 골

EPL 6경기 만에 득점포

토트넘 4위 도약 이끌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두 번째로 교체 출전한 손흥민(31)이 그라운드를 밟은 지 단 4분 만에 리그 5호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잉글랜드)의 4위 도약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2-0으로 물리쳤다.

후반 11분에 측면 수비수 에메르송 로얄이 결승골을 넣었고, 후반 27분 손흥민이 쐐기 골을 터뜨렸다.

후반 23분 히사롤리송 대신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까지 단숨에 쇄도한 후 오른쪽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달 5일 크리스탈 팰리스전(4-0 승)에서 골맛을 봤던 손흥민은 이후 리그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

케인의 골을 도운 지난달 24일 풀럼전(1-0 승) 이후 3경기 만에 작성한 공격포인트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리그에서 5골 3도움을 올리고 있다.

EPL 통산 98골을 작성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 'EPL 100호 골' 고지 달성에 2골만을 남겨뒀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넣은 2골,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2골을 더하면 손흥민의 올 시즌 공식전 기록은 9골

3도움이다.

이날 경기는 리그에서 시즌 2번째 교체 출전인데, 공교롭게도 교체로 나섰던 두 경기 모두 득점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18일 레스터 시티전(6-2 승)에서 올 시즌 처음 교체로 나섰고, 손흥민은 후반 28분부터 41분 사이 13분 만에 세 골을 폭발한 바 있다.

이날 토트넘에서 가장 먼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선수는 손흥민 대신 왼쪽 공격수로 나선 히사롤리송이었다.

전반 추가 시간 케인의 침투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 깊숙한 곳까지 전진한 그는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노렸으나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아냈다.

히사롤리송은 후반 시작과 함께 펼쳐진 역습 상황에서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내준 패스를 받아 페널티박스에서 또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에도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두 차례 절호의 기회가 무산된 토트넘에서 선제골은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 에메르송의 발에서 나왔다.

후반 11분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가 후반에서 전달한 침투패스가 벤 데이비스를 거쳐 문전 쇄도한 에메르송에게 전달돼 골로 이어졌다.

12분 후 히사롤리송 대신 투입된 손흥민은 2-0으로 달아나는 쐐기 골을 케인과 합작하며 홈 팬들을 환호케 했다.

EPL 역대 최다 골 합작 기록을 보유한 손흥민과 케인은 이 기록을 45골로 늘렸다. 공식 경기 전 차를 놓고 보면 52골을 합작했다. 완승한 토트넘(13승 3무 8패-승점 42)은 UCL 진출권의 마지막 선인 리그 4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이정호 감독 “광주만의 색깔로 밀고 가겠다”

K리그 2023 개막 미디어데이

“소신을 꺾지 않고 광주만의 색으로 밀고 가겠다.”

광주FC의 이정호 감독이 1부리그 데뷔전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이정호 감독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 주장 안영규와 함께 참가했다.

지난해 압도적인 질주로 K리그2 우승을 이루며 참여한 K리그 미디어데이 행사, 이정호 감독은 ‘광주만의 스타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올해 광주만의 색을 내면서 소신을 꺾지 않고 우리의 색 그대로 밀고 가는 게 내 각오다”며 “잔류가 목표가 아니다. 첫 경기부터 (개막전 상대인) 수원 팬들에게 우리 축구가 어떤지 알리고 싶다. 잘 준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사령관들의 시선은 역시 ‘디펜딩 챔피언’ 울산현대와 ‘우승후보’ 전북현대에 쏠렸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력 보강을 한 인천유나이티드와 FC서울 등의 약진을 예상하는 이들도 많았다.

광주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고 싶은 팀”을 묻는 질문에 대구FC 주장 오승훈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K리그1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광주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K리그2 MVP이자 우승 주장으로 이정호 감독의 옆을 지킨 안영규는 “마지막에 웃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K리그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광주FC의 이정호 감독과 안영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영규는 “우리를 강등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 시즌 4강 예상’ 질문에 대해서 이정호 감독은 “4강 안에 올라 가기 위해 모든 팀이 우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쉽게 승점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고 광주의 끈질긴 추구를 예고했다.

올 시즌 이회균을 기대하는 선수로 꼽은 이정호 감독은 행사장에서 이회균의 이름도 언급했다.

이날 이정호 감독은 이회균의 유니폼을 입고 행사장에 입장해 자리를 지켰다. 안영규도 행사 사진 촬영 때 이회균의 유니폼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광주에서만 7시즌을 보낸 ‘터줏대감’ 이회균은 지난 14일 연습경기 도중 쇄골 부상을 입어 수술대에 올랐다. 팀의 최고참으로서도 역할이 막중한 제자의 부상에 이정호 감독은 유니폼으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정호 감독은 “이회균 선수가 동계 때 상당히 준비를 잘했는데, 입주일 전 큰 부상을 당했다. 어떤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될까 고민했는데, 그 어떤 말보다 선수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웃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디어데이 행사를 통해 기싸움을 벌인 K리그1 12개 구단은 오는 25일 우승을 향한 경쟁에 돌입한다. 광주는 25일 오후 4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시즌 첫승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